

대행 스님

이 진실된 마음의 무주상 보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둘러치고 메치고, 이리 둘러 가고 저리 둘러 가고,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하면서 팔자 타령도 하고 운명 타령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가시는 자기의 그 인생관, 그런 거를 살펴보실 때에 부처님 법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백봉 국사도 "이 세상 일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한다면 네가 견성하고 성불할 수 있느니라. 그 견성도 이름일 뿐이요, 성불도 이름일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이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우리 한마음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물가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각각 서 있었지마는 모습을 가지고, 그 무슨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면에 마주 서서 속삭이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습을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눈도 없는 눈으로서의, 말 없는 말로서의, 몸 없는 몸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같이, 이리로 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일 초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애정이 너무도 치열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항상 바람 따라 물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모든 마음들이 항상 같이 속삭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마구 뽑아 버리고 또 가지를 잘라 버리고 이런다고 서로 속삭거리면서 얘기를 했지마는, '그 모습이야 어쨌든지 그저 아픔만 조금 스쳐 갈 뿐이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됐지.' 하고서 항상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양면에 살고 계셨는데 항상 우리들을 데리고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한자리고 또 아빠가 오시면 우리들에 한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우리가 지낸 거와 같이 인제는 너희들 갈 데로 바람 따라 물 따라 갈 때가 됐느니라. 바람 따라 물 따라 가다가 물에 쓸려서 발길이 닿걸랑은 거기에 바로 안식처를 만들고, 돌에 닿걸랑은 돌 틈에 안식처를 만들고, 얕은 물에 발길이 닿걸랑은 거기 정착을 해라. 정착을 하고 보면 너희 모습들이 점점 달라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도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너희들 같은 애기를 낳을 수 있느니라. 그러되 언제나 거슬러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모습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나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산단다. 엄마 아버지를 똑똑히 봐라. 이건 모습이니라. 모습이고 이름이지마는 스스로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정착하는 일은 끊임이 없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속삭이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또한 끊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형체가 없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무들이니라. 저렇게 사람들, 갖은 짐승들, 갖은 새들이 다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닥에 정착을 하고 모습을 갖추어서 자랑하고 있지마는, 다니지 않고 정착을 해서 있는 모습이나 저렇게 다니는 모습들이나…. 저 다니는 모습들은 더 바쁘니라. 물질을 보고 이름을 듣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러니 너희들은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따라서 네 발이 닿걸랑은 정착을 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 순간 그 씨들은 우수수 떨어져서 거기에 닿은 놈은 거기 그냥 부모 밑에 정착을 하고, 바람 따라서 또 물로 떨어진 놈은 물 따라서 한없이 흘러가다가 어느 물가의 흙에 닿으면 정착을 했고, 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을 했고…. 그 많은 나무들도 그렇게 생에 의해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들이나 생물, 모든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사람도 역시 그렇겠지마는, 엎치고 또는 뒤집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숨바꼭질하면서 생존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허덕이고 찢기고 아프고 웃고 울고 하는지, 이럭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한층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생존 경쟁은 상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생김도 다 차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부자연스러웠다면 그 모습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력이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으로 이것이 거북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서 자기 방어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 따라서 자기 모습도 바꿀 수 있고, 자기 마음 따라서 발도 길게 만들 수 있고, 발가락도 더 나오게 할 수 있고, 꽁지도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날개도 있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새도 부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넓게 만들 수도 있고,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곧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가지가지 모든 그것들이 다 마음의 조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 하는 사실 자체는…, 바로 우리 체가 있는 몸뚱이 하나로써는 도저히 유와 무를,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는 한계가 있는데 천차만별로 천 가지 만 가지 만법을 어떻게 다 양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 생김생김이 모든 게 모습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니라. 그 모습, 이름 속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자체에 진의가 있느니라. 그 마음 자체에 한마음이라는, 한자리 한마음이라는 그 근본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체가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한마음이 될 수 있느니라. 한마음이라는 말도 그것도 이름이니라. 삼천대천세계라는 그것도 이름일 뿐이요, 여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여여하게 걸림 없이 내세울 게 없이 그대로 영료하게 내가 물 먹으면 물 먹고 옮겨서 또 밥 먹으면 밥 먹고 하는 거뿐이지, 그 외에 무엇을 이름을 지을 게 있으며 어떤 모습을 보고 끄달릴 게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마는, 또 사람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